

## 韓國經濟의 世界化를 위한 資本財產業 育成 對策

### 1. 韓國經濟 世界化의 當面課題

우리 경제는 輸出과 投資가 늘어나면 輸入이 늘어나는 構造的 問題를 안고 있음.

- '70년대초 경공업에서 重化學爲主로 정책을 轉換하였으나, 완성품위주의 組立生産에 치중하여 기계류·부품 산업은 競爭力 미약
  - 資本財의 상당부분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.
    -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(93) : 26.6%
    - 투자의 수입유발효과(90) : 28.4% (일본 9.5%)
- 따라서 최근 投資가 늘어남에 따라 資本財 輸入이 늘어나 國際收支 赤字幅은 확대

|               | '94   | '95. 1~3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• 전체수출입차(억불)  | △63   | △43      |
| • 자본재수출입차(억불) | △31   | △15      |
| (반도체 제외시)     | (△95) | (△35)    |

- 자본재수입은 對日貿易 赤字의 주요 原因으로 작용

|                 | '94  | '95. 1~3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• 대일자본재수출입차(억불) | △138 | △37      |
| • 대일수출입차(억불)    | △119 | △36      |

高賃金構造에서 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高附加價值産業으로 전환되어야 함

○ 최근 전반적으로 경기는 好況局面이지만 輕工業과 重化學工業간의 隔差는 持續

|              | '94    | '95. 1~3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• 産業生産增加率(%) | 11.1   | 14.1     |
| (輕工業)        | (3.1)  | (3.8)    |
| (重化學)        | (13.9) | (17.8)   |

○ 이는 그동안의 임금상승으로 人件費 比重이 높은 輕工業은 採算性이 劣化되고 있기 때문

|                      | 輕 工 業 | 重 化 學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• 附加價值對比 人件費 比重('93) | 59.3% | 49.6% |

○ 高賃金 현상은 지속될 것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資本財產業 등 附加價值가 높은 重化學工業으로 전환되어야 함.

|                   | 輕 工 業 | 重 化 學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• 賣出額 經常利益率 ('93) | 0.47% | 2.24% |

⇒ 투자증가시 輸入이 늘어나는 問題를 해결하고 高附加價值産業으로의 轉換을 위하여 資本財產業 育成 필요

2. 資本財產業 育成 必要性

資本財產業은 競爭力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단 경쟁력을 갖게되면 開途國의 추격이 困難한 産業

- 資本財產業은 商品의 生産에 필요한 機械類·部品·素材를 만드는 산업으로 전체산업의 競爭力을 궁극적으로 좌우
- 가격보다는 技術·品質이 중요시되는 技術集約的인 산업
  - 기술습득이 어려워 先進國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나
  - 輸入規制가 없는 분야로 일단 競爭力을 갖게 되면 수출증대는 물론 開途國의 추격이 곤란

최근 資本財産業의 競爭力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機會가 도래

- 「엔高」로 日本資本財의 가격경쟁력이 低下되고 있을 뿐 아니라 日本 기업들은 海外移轉을 적극 모색
  - 우리 技術水準 및 周邊生産與件이 동남아 국가보다 優位에 있어 日本기술 吸收에 유리
- 中國 등 아시아 국가들의 産業化 추진으로 인한 자본재 수요증대 예상
  - ⇒ 모든 力量을 동원하여 이번 기회에 資本財産業을 획기적으로 育成토록 함.

3. 資本財産業 現住所

資本財産業의 比重은 증대되고 있으나 核心分野의 競爭力은 脆弱한 상태

- 자본재사업의 業體數는 2만 4천개로 86만명이 종사
  - 이중 중소기업 비중은 業體數 기준으로 98.8%, 從業員數 기준으로는 64.1%임
- 그동안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政策的 努力을 기울여 온 결과 國民經濟內에서 자본재산업의 比重 增大
  - 資本財産業의 GNP 比重(%) : 5.4(80) → 13.9('94)
  - 資本財의 總輸出 比重(%) : 22.9(80) → 49.8('94)  
(반도체 제외시) (36.3)
-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품목은 競爭力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機械類·核心部品·素材産業은 競爭力이 미흡
  - 특히 設計技術·制御計測技術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
- 분야별로 보면 一般機械의 競爭力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, 電氣·電子는 對日貿易逆調가 심한 편

|                  | '94  |     | '95. 1~3 |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| 전 체  | 대 일 | 전 체      | 대 일 |
| • 一般機械 수출입차(억불)  | △135 | △75 | △41      | △21 |
| • 電氣·電子 수출입차(억불) | 128  | △42 | 31       | △11 |
| • 自動車部品 수출입차(억불) | △7   | △8  | △2       | △2  |
| • 素材 수출입차(억불)    | △17  | △13 | △3       | △3  |

#### 4. 資本財產業 育成 對策

##### 推 進 戰 略

- 국산화 차원을 넘어 資本財產業을 향후 우리나라의 輸出戰略產業으로 育成
- 戰略 分野에 대한 集中 支援으로 세계 最高 品質의 製品 生産
  - 自動車, 電子 등 수요대기업이 있는 경우, 需要大企業이 주도적으로 기계 및 부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
    - 大企業이 中小 機械·部品企業을 지원하는데 대하여 정부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  - 一般機械와 같이 특정 수요대기업이 없는 경우, 通商產業部가 수요·생산업체의 참여하에 開發計劃 推進
- 試製品 개발에서 販路 확보까지 一貫性 있는 支援體系 確立
  - 資金支援과 함께 技術, 人力, 情報 등 기반조성 확대
  - 一般機械, 自動車, 電子 부문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
-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投資誘致 努力 強化
-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이 中小企業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推進

#### 4-1 需要基盤 擴大

##### 〈現況 및 問題點〉

- 國產機械購入의 금융조건이 外産에 비해 불리
  - 外産機械구입시 금리(외화대출금리) : 國際金利(7% 수준)
  - 國產機械구입자금 금리 : 國內實勢金利(13~15%)

##### 〈對策 方案〉

#### '96년까지 國內外 金融條件의 불균형 解消

- '95년중 국제금리수준의 外貨表示國產機械購入資金 規模 擴大 : 1,200억원 → 1조원
- '96년중 外貨貸出制度를 전면개편하여 外貨貸出 대상품목에 외산뿐만 아니라 國產機械 구입 및 리스용도 허용
  - 저금리의 海外資金을 활용하여 國산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
  - 外산과 國산의 金利差異 해소로 國산기계의 가격경쟁력 향상
- 融資對象 : 통산부장관이 재경원장관과 협의·고시하는 品目
  - 우선 파급효과가 큰 核心品目 중심으로 告示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('96년 30%, '97년 50%)
- 金利引下效果 : 지정고시품목은 5~7%p, 國산기계류 전체는 '96~'97년중 1.5~2.5%p로 예상

#### 「機械類專門 割賦金融會社」設立 許容

- 機械類生産企業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

#### 機械類 輸出 支援 擴大

- 연불수출자금 확대 : 28,000억원('95) → 35,500억원('96)
- 기계류 수출에 對外經濟協力基金 우선 지원

## 4-2 生産 支援 擴大

### 〈現況 및 問題點〉

- 開發資金支援規模가 不充分하여 핵심기술개발에 한계
- 多數品目を 少額支援하여 지원효과 분산(평균 2억원 지원)
- 標準化가 미흡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

### 〈對策 方案〉

#### 工業發展基金중 試製品開發資金 支援 擴大

- 支援規模 : ('95) 1,200억원 → ('96) 2,000억원
- 품목당 支援限度 : 5억원 → 20억원(필요시 특별한도 인정)
- 戰略品目에 대해 償還期間(2년거치 3년상환) 연장 검토

#### 多數品目에 대한 少額支援方式을 戰略品目 中心으로 轉換

- 需要企業이 중소생산업체와 共同開發하는 品目を 重點 支援

#### 新技術 創業企業에 대한 金融支援 強化

- 新技術事業金融會社 대출심사시 「技術性」의 配點比率을 上向 調整

#### 자본재 기업의 技術開發準備金の 적립한도 상향조정

- 현행 매출액의 3%(기술집약산업 4%) → 5%
- 이와 함께 技術人力開發費 새액공제 移越控除期間 연장(5년 → 7년)

#### 「標準化企劃團」을 工業進興廳(단장 : 차장)에 설치

- 표준화를 위한 産業技術基盤造成資金 지원 확대

### 4-3 品質保證業務 強化

#### 〈現況 및 問題點〉

- 優秀製品을 개발해도 수요자가 品質을 믿지않아 購買 忌避

#### 〈對策 方案〉

#### 品目檢査業務를 지원하는 「品質認證센터」를 설치

- 設置機關: 公營기술원 또는 연구기관
- 機能: 認證업무의 窓口역할, 品質自體評價 및 認證, 國內의 적정 인증기관에 依賴, 國內의 자본재의 品質比較評價
- 外國機關의 品質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海外市場開拓基金에서 일부 지원
- 品質인증을 위한 人力 및 裝備의 補強 지원
- 品質평가에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「優秀品質마크」 부여

#### 「優秀品質마크」 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

- 技術信用保證基金의 보증 확대(15억원 → 30억원)
- 創業企業에 대한 技術信用保證基金의 간이심사 보증지원 강화
  - 창업 1년미만 3억원까지(신규), 3년미만 3억원 → 6억원까지
- 創業投資會社가 投資할 경우에는 創業支援基金에서 50%까지 자금융자

#### 「優秀品質마크」 품목에 대해 「瑕疵保證制度」 실시

- 중대한 하자발생시 製品價格 全額을 賠償
- 이를 위해 기계공제조합의 機械類瑕疵保證基金에 정부와 민간이 50%씩 出損하여 基金규모를 擴大

4-4 技術·人力 및 情報 支援

〈現況 및 問題點〉

- 완성계를 중심으로 한 組立加工技術과 半導體素材 技術은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접근하였음.
- 그러나 電子, 機械·設備, 部品·素材技術은 선진국에 크게 뒤지며, 核心部品과 設計技術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

主要産業 部門別 技術水準

| 産業 部門     | 技術 分野  | 技術水準(선진국=100)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전 자       | 컴퓨터    | 30~40         |
|           | 제어계측   | 30            |
|           | 전자제품   | 60            |
|           | 반도체    | 60~70         |
| 기 계 · 설 비 | 매키토로닉스 | 40~50         |
|           | 자동차    | 70            |
|           | 환경설비   | 40~50         |
| 소 재       | 금속소재   | 60            |
|           | 반도체소재  | 90            |

- 工高, 專門大, 工大 등 기술 및 기능인력 供給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不足
- 敎育기관의 實習裝備가 불충분하고 老朽
- 情報管理體制가 未洽하여 정보수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

〈對策 方案〉

工高, 專門大, 工科大学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

- 전체 고교생중 工高生 비율을 계획대로 확대
- '94년 14% → 2,000년 22%

機能大學 등 2년 다기능기술과정에 專門大 수료 학력 인정

- 수요가 많은 短期職業訓練課程(주·단조, 금형, 열처리 용접 등)의 연수대상 人員을 擴大

기술수준이 낮은 設計부문의 技術開發 및 人力 養成

- 特定研究開發事業 지원 규모를 擴大하여 核心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강화
- 生産技術基盤構造資金 支援을 擴大하여 設計人力 養成기관 및 과정 확대



財政支援을 확대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教育機資材를 연차적으로 최신 國產으로 대체

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「技術指導團」을 구성하여 核心隘路技術에 대한 現場指導를 강화

외국의 有能한 技術者 誘致方案 검토(예시: 永住權 부여 등)

中小企業 부설연구소의 研究人力은 중소기업 종업원수에서 除外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確保支援 강화

現場 技術人力에 대한 所得稅 감면

-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무하는 現場 技術人力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 경감 추진

『兵役特別 産業技術要員制度』('94년: 35,500명) 확대

- 자본재산업에 대한 배정비율 제고 추진

『資本財產業 綜合支援센터』 설치

- 資本財產業과 관련한 創業, 技術, 經營, 販路, 情報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 지원
  - 낮은 임차료로 사무실, 事務器機 및 기자재사용 제공
  - 國內外 연구기관, 大學 등의 기술지원 중계
  - 共同展示·판매, 認證獲得 및 外國과 技術提携 등 지원
- 機械類·부품 등 資本財產業이 밀집한 공업단지 인근 지역 및 大都市地域에 설치
  - 대도시지역은 「地方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」와 연계운영
- 財源調達: 政府·地方自治團體·經濟團體 공동부담

#### 4-5 外國人投資의 積極 誘致

##### 地自體의 外國人企業 誘致에 對해 中央정부지원 확대

- 未分讓工團을 外國인기업에게 公團 조성원가보다 낮게 分讓할 경우 그 差額의 50%(신규조성 30%)를 中央政府가 부담
- 賃貸의 경우 中央정부가 敷地買入價의 50%(신규조성 30%) 지원

##### 광주 평동 外國人全用工團의 人住條件 改善

- 分讓價를 인근 公團 수준(평당 28.6만원)으로 引下調整
- 임대에 對해서는 일정기간(5년) 賃貸料를 대폭 輕減

##### 輸入先多邊化制度의 例外 認定

- 外國人專用工團의 입주업체에 對하여 일본의 기자재 및 부품수입을 허용

##### 우수외국인력의 滯留 上限期間 延長(4년 → 6년)

##### 對日投資誘致使節團 활동 強化

- 自動車 部品, 電子 등 업종별 대일 투자유치단 파견
- 일본의 「對韓投資 調査團」유치
- '95년 11월 東京에서 「韓國部品綜合展示會」 개최

### 資本財産業의 비전과 覺悟

- 이번에 樹立한 資本財産業 育成對策을 蹉跌없이 推進하여 戰略核心品目の 開發이 計劃대로 이루어질 경우
  - 對日輸入이 輸出의 2배 수준('94년)에서 2000년에는 1.5배로 낮아지고, 10년 후인 2005년경에는 對日貿易收支가 均衡水準에 근접하게 될 전망
  - 資本財의 輸出規模가 '94년도 478억 \$ (총수출의 49.8%)에서 2005년에는 1,500억 \$을 상회함으로써 全體輸出에서 60%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
  
- 이렇게 될 경우 우리경제는 後發開途國에 대해 뚜렷한 競爭優位를 確保하면서
  - 戰後에 資本資產業을 成功的으로 育成한 最初의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며
  - 명실공히 우리경제의 世界化가 이룩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의 中心國家의 하나로 浮上하게 될 것임
  
- 이렇게 되기 위해 勤勞者와 經營者, 企業과 政府 모두가 渾然一體가 되어 努力할 것을 다짐함